



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에 설립될 예정인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에 대해 발표

지역의 관광산업, 역사, 식품, 음료 등에 관해 홍보하게 되는 지역 웰컴 센터(Welcome Center)

2018 년 말에 개관할 예정인 웰컴 센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제퍼슨 카운티의 콜린스 랜딩 소재 사우전드 아일랜드 브리지(Thousand Islands Bridge) 근처에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가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웰컴 센터는 지역 명소, 음식, 수제 음료, 기타 명승지 등을 개선하여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려는 주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주 전역에 지은 11 곳의 센터 중 한 곳입니다.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2018 년 가을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 명소와 함께 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 및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Welcome Center)는 지역 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며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에게 노스 컨트리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 있는 웰컴 센터의 성공을 바탕으로,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에는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 및 이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특정한 지역별 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베이(Alexandria Bay)의 하트 아일랜드(Heart Island) 소재 볼트 캐슬(Boldt Castle) 및 클레이튼의 앤티크 보트 뮤지엄(Antique Boat Museum)과 같은 명소들이 포함됩니다. 이 웰컴 센터에는 노스 컨트리 전 지역에서 재배된 지역 농산물을 선보이는 테이스트 뉴욕 마켓(Taste NY market)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웰컴 센터를 위한 기금은 2018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Fiscal Year 2018 New York State budget)의 일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재임 기간 중, 관광산업이 번창하면서 일자리 만들기과 뉴욕주 전 지역의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방문객들이 지역 명소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도록 여행객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투자의 장점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뉴욕주 일반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General Service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뉴욕주의 아름다운 지역에서 방문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방문객들이 맛볼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웰컴 센터는 지역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저는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팀이 이 흥분되는 새로운 노스 컨트리 공간 건설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웰컴 센터는 다양한 농산물 및 음료수 생산업체 및 사업체를 포함한 우리 주의 독특한 지역 자산을 홍보할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이 지역 전체의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농업 경제를 촉진시키고 있는 노스 컨트리의 홈메이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Paul A. Karas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이 지역의 아름다움, 주민, 제품 등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가보아야 할만한 모든 명소로 통하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웰컴 센터는 뉴욕의 많은 명소들을 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하면서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을 홍보합니다.”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트 타기와 낚시에서 단순히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일까지,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와 같은 곳은 이 세상에 따로 없습니다. 이 새로운 웰컴 센터를 통해, 우리는 방문객, 특히 캐나다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명소를 소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웰컴 센터를 찾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관광 등을 위한 끝이 없는 기회를 즐기기에

사우전드 아일랜드(Thousand Islands)가 방문객들을 소개하기 위한 완벽한 장소임을 인식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ddie Jen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ew York) 컨셉트를 특징으로 하는 이 웰컴 센터는 우리 지역에 훌륭한 추가 자산이 될 것입니다.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세인트 로렌스 리버(St. Lawrence River)를 따라 번성하는 우리의 농업과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삼는 경제에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서 최고 수준의 생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시설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차량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쇼핑하면서 머물도록 발길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필요합니다. 이 센터는 지역 사업체 및 관광 명소에서 벌이는 힘든 판촉 활동을 보완하며 우리 생산업체 및 전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노스 컨트리 우리 관광산업 및 농업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통한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에 감사드립니다."

제퍼슨 카운티 의회의 **Scott Gray**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노스 컨트리에 전례 없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우리 지역이 제공하는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 역사, 명소 등을 홍보하면서 성공을 쌓아갈 것입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Jay Matteson** 농업 조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웰컴 센터(North Country Welcome Center)는 우리의 농산물, 특히 우리의 농장에서 생산하는 수제 음료, 맛있는 식품, 농업 관광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북쪽 국경을 넘어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노던 뉴욕이 아름다운 홍보관을 가질 시기입니다. 우리 농업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이 일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 베이(Alexandria Bay)에 위치한 잉클 샘 보트 투어스(Uncle Sam Boat Tours)의 **Ron Thomas** 소유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웰컴 센터는 사우전드 아일랜드(1000 Islands) 및 제퍼슨 카운티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1 번 도로(Route 81)에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고도로 가시적인 최신 시설에서 우리 지역이 제공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을 일자리 만드는 산업으로 대하는 주지사님이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이 대단히 필요한 시설에 투자를 단행해 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Cuomo** 주지사는 서퍽 카운티(Suffolk County)의 디스 힐스(Dix Hills)에 롱아일랜드 웰컴센터(Long Island Welcome Center) 개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뉴욕시 웰컴센터(New York City Welcome Center)가 맨해튼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개관하였고 풀턴빌(Fultonville)과 캐너조해리(Canajoharie) 사이의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옆 로크 E-13(Lock E-13)에 모호크 밸리 웰컴센터(Mohawk Valley Welcome Center)가 개관했으며 브룸 카운티의 커크우드에서 서던 티어 웰컴 센터(Southern Tier Welcome Center)가 개관했습니다.

2011년 당선된 이래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6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2억 3,9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3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4번째로 큰 고용산업이며 매년 91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